



합작도 '다시 함께'.

"같은 뿌리, 다섯 시선"
문인화 그룹전 '오우화담'

제주에서 문인화를 그리는 다섯 작가들이 한 공간에 모인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주문화관 제2전시실에서 열리는 그룹전 '오우화담(五友畫談)-같은 뿌리, 다섯 개의 시선'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미영, 김양희, 김점순, 박근영, 오수열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스승인 최형양 작가에게 10여 년 동안 문인화의 기본 정신과 필법을 익히며 제주문인화연구회, 제주문인화군방도 등에서 활동을 함께해왔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를 갖고 각자의 시선으로 사유·미감·삶의 태도를 묵향으로 표현한 문인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또 이들이 함께 그린 가로 3m, 세로 2m의 대작 합작도 '다시 함께'도 전시된다. 박소정기자

내달 '제주북페어 2026'
참가팀 19일까지 모집

제주시 탐라도서관이 내달 28~29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주북페어 2026'에 참여할 참가팀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독립출판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 독립서점 등이다. 종이책 1권 이상 제작하거나 판매하고 행사 기간 모두 참여 가능할 200개팀을 찾는다.

참가 신청은 이달 2일부터 19일 까지 제주북페어 인스타그램(@jejubookfair2026) 상단 프로필 링크에 접속해 구글 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탐라도서관은 모집 후 내부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참가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무대 이어가는 뮤지컬 '고래의 아이'

올해 문예회관 특성화사업
제주 2곳 선정돼 공연 지원
문예진흥원 2년 연속 선정
올해는 서울 공연도 추진
서귀포예당 '환상교향곡'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제공

지난해 초연된 제주 창작 뮤지컬 '고래의 아이'가 올해에도 무대를 이어간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나 간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 예술회관연합회에 따르면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은 지역 문예회관의 제작 역량 강화와 지역 고유 공연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에 지원한 전국 문예회관 117곳 중 95곳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 중 제주는 2곳이다. 제주 특별자치도 문예예술진흥원은 뮤지컬 '고래의 아이'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뮤지컬 '환상교향곡'으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대표 지역 특

화 공연 레퍼토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연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연은 오는 7월 개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4·3 평화재단과 협력해 서울 공연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작 공연콘텐츠 제작'에 선정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뮤지컬 '환상교향곡'을 제작해 오는 10월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환상교향곡'은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1803~1869)의 작품 '환상교향곡'을 모티브로 한 클래식 기반 뮤지컬로, 다양한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제주 8곳의 소극장이 모여 출범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도지회.

제주 8곳 소극장 "지속가능성 함께 고민"

제주소극장협회 출범
신임 지회장에 강상훈

제주지역 소극장들이 지역 공연예술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이하 제주소극장협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도내 8곳의

소극장 대표들은 이날 제주시 삼도 1동 세이레아트센터에서 제주소극장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참여 소극장은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온아트홀, 채플린소극장이다.

제주소극장협회에 따르면 소극장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공연장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생산하는 핵심적인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상업화와 경영난 속에서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과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 소극장들이 모여 협회를 출범하게 됐다.

제주소극장협회는 앞으로 지역 창작공연 활성화, 실험예술·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제작 환경 마련, 지역 문화콘텐츠 양성과 유통 기반 확대, 정책 제안과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신임 지회장에는 강상훈 세이레아트센터 대표가 선출됐다. 강 신임 지회장은 "공연예술의 다양성을 잊지 않도록 소극장협회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영화觀 시라트

죽음으로 하여금

생의 끝에 죽음을 두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죽음 앞의 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쩐지 지나친 비관으로 느껴진다. 살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삶이 수많은 관계들로 이뤄진 복잡하고 미묘한 퍼즐과도 같은 것이라면 죽음은 명료하고 단호한 개인의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죽음을 함께 나눌 수는 없다.

영화 '시라트'는 '천국과 지옥을 잇는 다리'를 뜻한다. 영화 초반 자막으로 '건너려는 자 명심하라, 그 길은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롭다'는 이 다리의 위험천만함이 명시된다. '시라트'의 초반부는 아무것도 시야에 걸리지 않는 주홍빛의 사막 위에 거대한 스피커로 텁을 쌓고 레이브 파티에 흡뻑 취한 레이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사라진 가족을 찾는 루이스와 에스테반 부자가 마치 이방인처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채 움직이고 있다. 누구도 이들에게 떄하니 죽음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죽음을 설명한다. 갑작스레 닥쳐오는 타인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이들이 다음 면을 숨죽이며 기다린다. 우리가 살아 있는 관객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는 페이지의 마지막이 아님을 '시라트'는 미사여구 없이 기록하는 쪽으로 엔딩을 마무리한다. 이제 충격이라는 끊임없는 감각을 관객들 스스로가 해체해야 한다. 무엇이 그토록 열연했는지, 어떤 순간이 무서웠는지, 왜 소리 내어 반응하게 됐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을 때 이 잔인한 정도로 건조한 충격의 영화가 남긴 것들, 그 가늘고 날카로운 감각의 실체를 더듬을 수 있을 것이다.



죽으로 대중성을 택하지는 않지만 묘하게도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장치들을 싣고 달리는 '시라트'는 레이브 뮤직이라는 음악의 강렬함과 사막의 공간을 위에 지뢰의 폭발음을 더한 음향의 강력함을 바꿔쳐봄 쓰는 작품이기도 하다.

'시라트'는 삶과 죽음 사이의 다리를 건너는 이들이 만들 어내는 위태로운 의태어들에 관객 각자의 탄성과 비명, 한숨 같은 의성어로 답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재언어가 되지 못한 것들이,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죽음을 설명한다. 갑작스레 닥쳐오는 타인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이들이 다음 면을 숨죽이며 기다린다. 우리가 살아 있는 관객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는 페이지의 마지막이 아님을 '시라트'는 미사여구 없이 기록하는 쪽으로 엔딩을 마무리한다. 이제 충격이라는 끊임없는 감각을 관객들 스스로가 해체해야 한다. 무엇이 그토록 열연했는지, 어떤 순간이 무서웠는지, 왜 소리 내어 반응하게 됐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을 때 이 잔인한 정도로 건조한 충격의 영화가 남긴 것들, 그 가늘고 날카로운 감각의 실체를 더듬을 수 있을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남도기행

고품격 주말 1박2일

독일마을

순천만국가정원

오동도 / 유람선

원예예술촌

다랭이마을

노팁! 노옵션! 현지 가이드 동행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8시 20분) - 광주공항 도착 후 남해 이동 - 중식(멸치쌈밥정식) - 남해 원예예술촌 - 독일마을 관광 - 다랭이 마을 - 석식(꽃개탕정식) - 여수 노블호텔

2일차(일) 조식(통장어탕) - 오동도 관광 및 유람선 - 중식(개장백반+생선구이정식) - 순천만국가정원 관광 - 광주공항 출발(18시 15분)

출발일 (선택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2월 21일 마감임박 * 20인 이상 모객시 출발	2인 1실 기준 329,000원 3인 1실 기준 319,000원 4인 1실 기준 309,000원	왕복 항공료, 숙박료, 입장료, 차량료 조식1회, 중식2회, 석식1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주말 감성 선유도 여행

선유도&전주한옥마을&채석강&옥정호 NO팁, NO옵션

1일차(토) 제주공항 출발(08시 20분) - 광주공항 도착 - 곡성 차마마을 - 중식(한정식) -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 - 솔로우 시티 전주 한옥마을 - 석식(불낙전골) - 전주 시그니처 호텔

2일차(일) 조식(호텔조식) - 선유도 유람선 - 중식(꽃개탕) - 채석강 - 광주공항 출발(18시 15분)

출발일 (선택순 마감)	요금 (1인 기준)	포함내역
3월 7일, 14일, 21일	2인 1실 기준 359,000원 3인 1실 기준 355,000원 4인 1실 기준 350,000원	왕복 항공료, 숙박료, 입장료, 차량료 조식1회, 중식2회, 석식1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제주자유여행사
Since 1996

협찬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